

韓國漢文學 教育에 대한 提言

朴 性 奎

(啓明大 漢文教育科 助教授)

I

본 논고의 청탁 의도는 직접 현장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로 하여금 해당 학과의 성격과 아울러 문제점을 살펴보게 하고 나아가 가능하다면 해당학문의 發展的인 展望까지도 언급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한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명쾌하고도 객관적으로 해명되기는 용이한 일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漢文學科의 교육 현황과 전망에 대한 것도 그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고가 자연적으로 한문학과 교육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분석 결과의 서술이기보다는 다분히 그것에 대한 인상적인 느낌을 표명하는 데 지나지 않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급적 객관적인 자세를 견지하면서 한문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오늘날 대학에서의 漢文教育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기초교양과목으로서 한자교육을 위주로 하는 교양한문교육이 있고, 또 하나는 한자로 기술된 우리의 문화유

산을 대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정신과 思惟體系가 어떤 것인가를 발명하고자 하는 한국한문 전공학과에서의 한문교육이 있다.

앞의 한문교육은 한문이 하나의 도구과목으로서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자교육 외에는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한문학 전공학과에서는 한자교육은 물론이고 우리 한문학 유산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한국한문학과가 설립된 역사가 아직 日淺하고 교육과정 에 대한 객관성과 타당성조차도 널리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전공교육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리의 국학연구 수준이 일정한 수준에 올랐고, 그 축적된 성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가치를 부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에 반하여 풍부한 자료와 가치 있는 연구대상을 가지고 있는 한국한문학이 오히려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근본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우리 나라가 개화를 시작한 이후 한문화권의 영향에서 벗어나 점점 서구문화의 영향권으로 전이하는 과정에서 종래까지 한문의 지나친 盛勢에 대한 반작용으로 한문과 그 典籍을 물가치화하려는 非文明意識에 의한 것이고

둘째, 일제강점기 하에서 우리 지식인들이 일본

문화의 수용을 거부하려는 國粹主義가 지나치게 경직되어 한문학을 국문문학과 對照的인 관계로 설정시킴으로써 한문에 대한 배타의식이 自生한 것이며

세계, 일제치하에서 벗어나 서구문물의 도입 과정에서 나타난 倒錯된 현상 가운데 하나로 서구화가 바로 개화이고, 근대화와 일치한다는 그릇된 관점에서 연유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들은 한국한문학연구를 크게 위축시켰고, 아울러 국문문학연구를 보다 진전하게 이해하려는 입장에서 보아도 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이 최근의 국문학연구자들에 의해서 천명되고 있다. 한자가 19세기까지 우리 나라를 포함한 동양권 나라들이 사용한 보편 文語였고, 더우기 우리 나라에서는 유사 이래 출근 사용된 문어였기 때문에 한문은 외국어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同文同軌로 인식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한문학은 바로 역사상의 우리 선인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감정을 표현한 것이며, 시대의 흐름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가벼이 평가하거나 등한시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문학은 우리의 국문문학과 함께 우리 문학의 실체로 인정됨이 마땅하고, 깊이 있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역사성과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 개설된 한국한문학과가 본연의 연구에 진력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한국한문학이 포괄할 수 있는 학문영역을 설정하는 데 이견을 보이고 있고, 관련분야 학문과의 관계 설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음은 이 방면 종사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하겠다.

III

한문학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한문학과가 우리 고전문학 가운데 한문으로 된 한어한문학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공통적인 견해에 다다르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성격을 가진 한문학과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일반 교양한문교육을 위해서 힘쓰는 일면, 불모지에 가까운 한문학을 튼튼한 [반석] 위에 올려놓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

다. 그러나 대학 교수들 사이에서도 한문학과와의 연구대상이 중국문학과 우리 문학 가운데 어느 쪽인가를 물어 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아직 시작단계에 있는 한문학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점은 다른 어느 학과보다도 많은 것이 사실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논의할 여유가 없기 때문에 단순히 교양한문교육과 한문학 전공교육으로 나누어서 이들에 내재하고 있는 몇 가지 기본 문제만을 다루어 보도록 한다.

교양한문교육은 전 계열에 걸쳐 대다수의 교수와 학생들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교양과목을 중시해야 할 대학이 외국어 계열의 교양과목에 비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이같은 사실은 전국 대다수의 대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열의가 왕성한 요즈음의 현실에 비추어 보면 모순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학이 교양교육을 1학년 내지 2학년에 걸쳐 실시하고 있는 것은 전공분야의 학문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의 무장이라는 뜻이 되겠지만, 이것에 더하여 교양교육은 지식인으로서 사회생활을 통하여 처연하게 될 일상적인 知的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데에 있다고 하겠다. 오늘날 대학에서의 교양교육 목적은 아마 후자에 더 편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우기 요즈음의 대학교육이 갈수록 일반화, 대중화됨으로써 전공학문의 영역까지도 심화발전된 교양지식 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교양과목 교육의 방향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한다.

교양한문과목도 다른 교양과목과 마찬가지로 전공분야의 학문연구를 위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설정된 것이다. 한문이 가지고 있는 효율성은 전공학문 연구를 통하여 발견되는 함축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개념의 파악이나 용어들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와 함께 한문교육은 현실사회에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자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됨은 不問可知의 사실이다. 사회가 갈수록 발전하고 문화가 보다 다양해짐으로써 문자생활도 병행하여 복잡

해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한문지식은 새삼 요구되리라고 본다. 실제 강의시간에 교양한문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한자 어휘나 한자의 음훈에 대한 이해능력을 테스트해보면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이 사실이다. 만일 한창 사고의 폭을 넓혀 가고, 사물의 이치를 깊이 성찰해야 할 젊은 세대들이 한자 문맹자가 됨으로써 파행적인 문자생활은 물론이고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지를 잃게 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사태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실을 미루어 볼 때 대학에서의 교양한문은 강화되어야 할 것이며, 국어교육과 함께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면 대학에서의 교양한문교육이 어떻게 해야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리라고 본다. 지금까지 대학에서 실시한 교양한문교육은 주로 국학분야의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한정하여 실시되었고, 교재편성도 또한 국학분야 전공자에게 걸맞는 내용의 작품만을 모아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모든 계열의 학생들에게 유기적이고 효과적인 한문교육이 되기에는 불충분하였다고 하겠다. 또한 교양한문 담당교수 선정에서도 한문과목이 가지는 특수성을 의면하고 젊은 조학의 강사에게 의존해 온 것이 주된 경향이다. 이 외에도 고등학교에서 실시하는 한문과목과의 연계성을 감안하여 보다 심화된 내용과 교수법이 도입되고 있지 못함으로써 수강자들이 교양한문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된다고 하겠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의하여 한문교육이 대학에까지 이어져 전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부과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잃게 되었고, 비실용적인 기초 교양과목으로 인식된 것이 사실이다. 대학에서의 원만한 교양한문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문에 대한 사회인식 태도의 변화와 함께 어문정체상의 비려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먼저 자체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충실하고 알찬 교양한문교육이 경립되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본다. 따라서 교양한문 교재는 신입생 전체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보다 다양하게 하고 실용한문 습득과 함께 전통적인 동양과 한국의 사상, 문학, 역사 등에 접할 수 있

도록 편성돼야 할 것이다. 교재 내용은 중·고교 교과서와 비교해서 사물의 이치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가치관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선별하는 것이 마땅하리라고 본다. 한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담당교수가 한자에 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문장 이해에 널리 통해야 하겠지만 이것에 더하여 한문 문장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헤아리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도야된 인격과 풍부한 삶의 체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연령층이 높은 교수가 담당해야 좋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교양한문교육이 이루어진다면 교양한문은 다른 과목에 비해서 훨씬 실용적이고 가치 있는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전공학과에서의 한문학교육은 그 근본취지가 지금까지 방치된 무한한 한문학 유산을 발굴, 정리, 분석, 평가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의 맥락을 찾자는 데에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이다. 한문학교육의 이러한 궁극목표는 결국 현재와 미래에 전개될 우리 문화를 진전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창출하자는 데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전공학과에서의 한문학교육은 보다 조직적이고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존 한문학과에서 설정한 교과과정은 대학에 따라 차이를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문학과가 우리 전래의 한문전적을 연구대상으로 하되, 거의 10,000여 종에 달하는 전적 가운데서도 文學에 관계되는 전적을 주로 하기 때문에 교과과정 설정에 있어 한계성이 요구되고 있다. 10여 년 전에 처음 한문학과가 설립되었을 때에는 교과과정 구성에 있어 文, 史, 哲이 거의 같은 비율로 강조되어 어떤 경우에는 한국한문학을 연구하는 학과라고 보기에 어려울 정도로 특색 없게 이루어져 있었다.

한국한문학은 학문의 성격상 그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 관련분야의 학문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한문문자와 문체면에 있어서는 중국문학과의 유사성을 부정할 수 없고, 작품 내용과 작자의 측면에서는 비록 표기문자야 다를지라도 우리 선인들이 스스로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한 이상 국문문학과의 동질성은 확연하다. 또한 한문은 문학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역사와 철학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이 없으면 충실하게 이해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한문이라고 하면 文·史·哲이 混淆된 복합적인 성격으로 파악하기 쉽다. 그러므로 한국한문학이라고 하더라도 중국문학을 등한시할 수 없고, 동양과 우리 나라의 역사, 철학을 전혀 배제하고는 월만한 한문연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리라 본다. 그러나 한국한문학은 우리 선인들이 한자를 표기수단으로 하여 그들의 사상과 감정을 나타낸 우리 문학을 연구하자는 학문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관련학문에 연루시켜 본래의 취지를 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근래에 와서는 한문학계의 연구노력이 활발하고 연구성과의 축적이 현저하므로 관련 학문과의 관계는 세심된 면모를 보여 주고 있다.

漢語漢文學은 한자어학과 한문학으로 나누어지고 여기에 더하여 한문교육이 첨부될 수 있다.

한자어학이 한자에 대한 언어학적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여기에는 口語와 文語 양면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한문학과에서의 한자어학은 문어가 더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한자는 중국으로부터 받아들인 차용문자이고, 우리의 고대문자로서 慣用문자로 사용됐기 때문에 한자어학 연구는 일상의 담화를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문헌학적, 미교언어학적, 통시적 연구가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한문학에서의 한자어학은 표현을 위한 학문보다도 한문문장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한자어학을 한자학과 한어학을 구분하여 기본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교과목 설정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문학은 문학적인 측면을 살펴보는 것으로, 지금까지 나온 한어한문학 연구의 대부분이 한문학 분야에 관한 것이다. 그렇지만 한문학 연구가 아직 본체도에 오르지 못했고, 이 방면의 연구자들의 수가 다른 학문의 그것에 비해서 월등히 적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 단적인 예를 다음에서 살필 수 있다. 한문학 연구에서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한문학사에 대한 연구가, 1931년 김태준의 「朝鮮漢文學史」 출간 이후 몇 명의 학자들이 한

문학사를 썼고, 그러한 저서들이 한문학 발전에 기틀을 마련하였지만 방대한 한문학 자료와 그것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에 비해서 크게 부족하다는 점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김태준이 그의 「조선한문학사」에서 “이러한 연구는 고대문화의 결산처리에만 의미가 있고, 독자편으로 보면 박물관에 가서 석기시대의 부족이나 선영의 분묘 앞에서 족루를 발견한 느낌이나 되지 않을까 두렵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 한문학에 대한 일반적 인식이나 연구활동이 아직 초보단계에 이르고 있음을 예증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한문학 교과과정에는 우리의 역대 한문학 주류가 漢詩였기 때문에 시를 위주로 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시는 고려조 이후 한문 장르 가운데 가장 많은 작가와 작품을 남겼고, 그 문학적 성과도 다른 장르에 비해서 뛰어나다고 하겠다. 우리 한시에 나타난 문학적 가치와 우수성을 克明한다는 사실은 바로 우리 문학의 眞髓를 밝혀내는 일과 같은 것이므로 시에 대한 교과목은 보다 다양하고 폭 넓게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한문소설도 시에 못지 않게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교과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우리 한문학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설류를 俗文으로 간주하여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국문학의 현대소설 연구성과에서 보더라도 소설이 가지는 문학적 가치는 시에 못지 않기 때문에 교과과정 설정에서 한문소설관계 교과목의 안배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문학 발전에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던 批評文學에 대해서도 고려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본다. 미평문학은 고려조 중기 이후에 시작되어 독립된 영역을 형성해 왔기 때문에 학문적 체계를 수립하여 교과목으로 책정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한문학 작품의 올바른 해석과 연구를 위해서는 동양과 한국의 사상, 윤리, 역사적 배경을 이해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교과목의 설정도 요망된다고 하겠다.

한문학과에서 연구될 또 하나의 중요한 분야는 중등학교 한문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이다. 전국의 기존 한문학과 12개 학과 중에 10개 학과가 한문교육과이기 때문에 한문교사 양성을

위한 적절한 교과과정 설정이 요망되는 바이다.

지금까지 한문교사 양성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었어야 할 한문교육과의 교과과정이 비사범제열의 그것에 비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은 것에서 한문교사 양성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결여됐음을 알 수 있다. 중고교의 한문 교과서가 그 체제나 내용면에 있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는데도, 일선 중고교에서 한문을 전공한 교사를 채용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는 중고교에서 한문과목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다른 과목에 비해서 낮은 탓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한문전공학과에서 한문교사 양성을 위한 적의한 교육방법과 대책을 강구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과과정 설정에 있어 전공과목 교육의 충실화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에 대하여 자라나는 젊은 세대를 가르칠 한문교사 양성에 필요한 교과목의 설치와 이에 따른 적절한 운용이 논의되어야 마땅하다고 하겠다.

IV

지금까지 한문교육이 전통문화를 발명하고 미래문화의 올바른 전개를 위해 필요불가결하다는 사실과, 현재 한국한문학과가 연구활동에 있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을 소략하게 논의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한문학과와 문제점들은 한문학에 관한 연구업적이 쌓이고 부단히 정진한다면 쉽게 해소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직접적인 문제를 차치하고라도 한문학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많다. 이들 과제 가운데 하나가 산적해 있는 한문유산을 수집, 정리, 분석, 평가하는 일이다. 한문학과와 한정된 연구인력과 불비한 환경조건 하에서 흩어져 있는 문집류의 전적을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정리하며, 이것들을 적절하게 분석 평가하는 작업은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닐 것이다. 이러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사업으로 꾸준히 추구해야 할 것으로 전국의 한문학과 종사자만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한문학 전공자들이 그럴 만한 힘이 없다고 해서 그런 중차대한 일을 소홀히 생각하거나 실천에 옮기기를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전통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전진적인 자세로 自國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이 국학자의 이상적인 연구자세라고 하겠다. 한문학과와 종사자들이 이같은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일부분이나마 우리 한문유산을 수집, 정리, 분석, 평가하는 데 노력을 경주한다면 한층 가치 있는 자취를 남길 수 있으리라 본다. *